東亞日報 夕刊 六月十三日(土)

英國은蘇聯의極東 防備自主性을容認

難點이든質的制限受諾問題도 兩國側讓步로妥協成立

獨、對英現海軍 比率修正을要求

蘇의三萬五千噸級三隻建造에刺戟

佛國의勞働爭議 再次險惡化?

政府는武裝警官增員警戒

佛罷業에呼應 西班牙罷業再燃

市民은戰戰兢兢狀態

金屬工罷業 圓滿解決

勞資間團體契約調印

五社會政策法案 佛上院委員會附託

英兵의日本人殺害 大使館發表

米國大統領候補 랜돈知事를指名

副大統領候補에는넉스社長녹스氏 共和黨全國大會에서

候補指名된經過

兩軍武力衝突의 危機는解消氣運

一般民衆도南京擁護를通電

進退兩難의西南派

不正規軍三萬動員

對伊聯盟制裁案 撤回妥協遂成立

伊國政府는聯盟不脫退

熊參謀次長 韓氏를慰撫

巡警隊와衝突

廿六日聯盟理事會 議長招請狀發送

事務局은콤뮤니케發表

伯前首相飜意 組閣에着手

四十時勞働週制 佛國下院通過

治法撤廢에對한 外務當局의態度

今後在滿日本人에 營業稅를徵收 七月一日實施

北平各大學生 一齊休校斷行

八百學生團巡警과對峙中

無任所相制 設置는絕對必要

陸軍側强硬히主張

昨今의話題 社會主義

中央軍은 衡陽線確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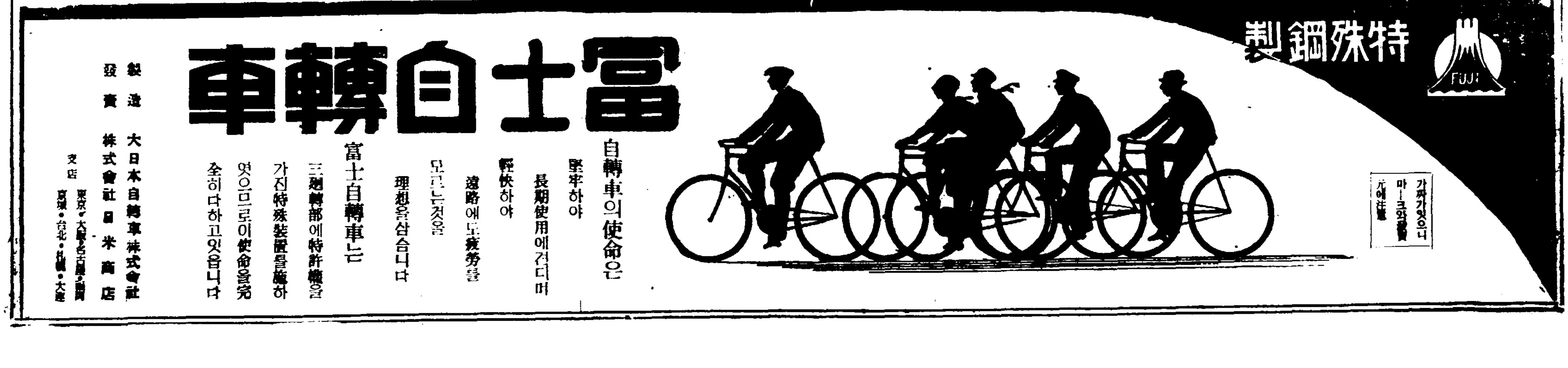
楊氏監禁解除 上海서國府와折衝

對中援助問題 日銀總裁外相과協議

漁業條約經費案公布

消息

橫說竪說



ClibPDF - www.fastio.com

六十年來大旱魃來?

中部에는井戶水까지枯渴

各道와連絡代作에腐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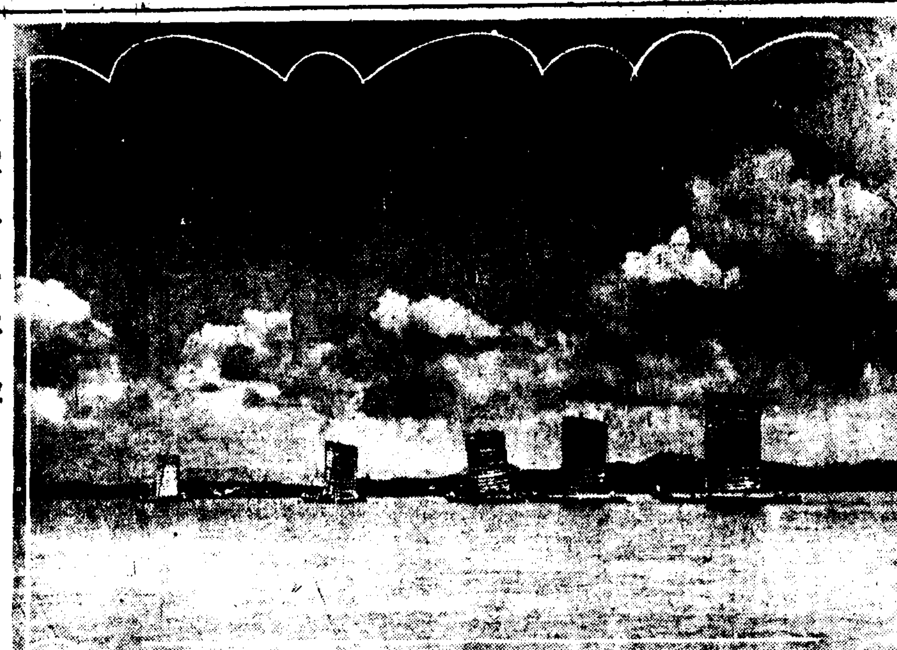
종전내 각지의 한발 염려는 더욱 더욱 심하여 총독부 농림국(農林局)에서는 각도와 연락하야 대작(代作)키로와 대책에 부심하고 잇는데 중부에서는 정호수(井戶水)까지 고갈한곳이 만타. 세상의 경험이만흔 노인들은 병자년(丙子年)에는 대한발(大旱魃)이 잇다고 말하는데 금년은 병자년에 당하가 때문에 六十년래의 대한발이 온다고 농촌의우려는 큼다고 한다.

旱魃地域이擴大

水量太不足、秧板은龜裂

南朝鮮에旱騷尤甚

감질내는雲霓·嗷嗷하는蒼生



夏雲은多奇峰 (仁川近海에서)

…가의 지성에도 비는나리지안코 사정없는한발이 계속되고잇는 한편旱天은나날이 그지역을답북으로 확대하고잇다.

그리하야 총독부 농림국에서도 나날이 한발이심각하고 또한그지역이 확대됨을 우려하야 그의대책을 강구하는한편으로 각도六월五일현재의 모(苗)의생육상황(生育狀況)을보고 하도록지령하엿다

그에 의한보고는 아즉도착되지안흔 도(道)도 잇으나 十三일까지 도착된각도의 보고에의하면대체로 용수가부족하야 이앙이 불가능한 천연답은물론 그밧게이앙이된곳도 고갈된 곳이적지안타고한다

이제 그중각도별로보면 다음과같다.

全北

밧에 심은지대에는 용수 고갈이다 우심하여온 작년한발의 여경으로 보원래하천에 수량이 부족한데다가 작년가을부터지금까지의우량이극소하야 모판에물이 부족하고또한 이앙한 논에 물이 말른곳이 벌서 一千五百여정보에 달하고잇다.

全南

전남도역시 전북과같이 원래용수가 부족하엿은관게로지난五월하순부터 용수가 고갈하야벌서 논에 흙이버러진곳이 국부적으로잇다고 한다.

그리고 모판이 말라버리어 보가못쓰게된 대책으로서는 벗가얍에 새로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새로심어노앗다고 한다.

忠北

모판외 생육은 별이상이없오나 그

慶南

종래의 한발지대로 대용작불을 심어논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용수부족되는곳이적지안타고한다

忠南

부분적으로 용수부족이다

黃海

아직 용수부족이 염려가없다 용수부족은 아직없으나 아오는 라는 충재와 도묘부 재병(稻南播腐病)이 적지안타고 한다

平北

의 피해가 적지안타고 한다 이 창궐하야 모(苗)

旱害非常時!

集團的으로 用水節約하라

農林局水利課橋古課長談

이에 대하야 총독부농림국수리과 교본(橋本)과장은 다음과같이 경고적 언명을 나리고 잇다.

한해는 시작한다. 때는 비상시다. 하늘만 처다보고 탄식할때가 아니다 …

昨日水道使用量

最高記錄突破

所謂對策은斷水?

더위에 부대기는 부민들은찻는것이물뿐이다.

수은주(水銀柱)가 八十六도를 가르친 十二일하로동안 경성부수도(水道)의 급수량(給水量)은 四萬一千五百卅九『립방메돌』에 달하야 금년에 드러서의 최고 기록을이루는 동시에 작년도의최고기록인七월의 三萬九千五百『립방메돌』을 개트리엇다한다.

이와같이 급수량이 나날이격증하여가는원인은 최근비는 오지안코 더위만이 놉아가므로 자연 부민들이 물을만히쓰게되는데 부수도의 최고급수량은四萬五千五『립방메돌』에 불과 하므로만약 금후十여일동안 비가오지안코 더위만이계속한다면 반드시물난리가 이러날것같으므로 부수도과에서는 그에대한 예비책을강구하고잇다는바 필경오래지 안하단수(斷水)방법을 쓰게될것이라 한다.

…저수량이 계양(?)에서는 어데까지나 집단적으로 용수를 절약할 필요가잇다.

그리고 각자의리해로 탈리 하는태도를 버리고 집단적으로 다소 이양시기의 실기로 수화의 감수를 보는한이 잇드래도 물을 절약하는 대책으로 비오기를 기다려 이앙을 시작할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적은수량을 가지고 각자가 이앙을하야 물을 반히쓰게되어 용수가 고갈하게되는 때에는 다수 수습하지못할 난경에 빠지게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려수리과 당국으로서는 저수량이 부족한 수리조합구역에는 반강제적으로 비가 올때까지 이앙을 식히지안흘 작정이다.

船主를拉去

【신의주】 十一일 오전 三시반경 평북 벽동(碧潼)창성(昌城)군계 대안 만주 관전현전자구(寬甸縣甸子溝)에는 게통미상의 마적十五명이 나타나 압록강 상중의 중강진(中江鎭)영림서(營林署)때목게류『로-프』를 실은 고뢰선一척과 만주인소유의 고뢰선 二척을 습격하야 조선측에 반포하엿으므로 외연(外淵)출장소원이 응원케되어 시켯는데 배는 무사하엿으나 선주 조선인 김형권(金行元)은 반만군에게 납거되엇다.

賃增額拒絶로

昭和鑛業에盟罷

七十名勞働者各散

강원도 삼척하장면(三陟郡下長面)에잇는 소화광업주식회사(昭和鑛業株式會社)의광구에서 작업중이든 광부(鑛夫)百四十七명이 지난二十六일에 총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그원인은 광부의 임은(賃銀)이 六十전내지 七十전에 불과한데다 가식비가 三十八전이오 그외의여러가지를 제외하고나면 가족의생활이 전연파연하다하야 회사측에 임은인상을 요구하엿든바 이것을 거절당하고 즉시총파업을 하게된것이라한다.

그후 여러가지로 교섭과타협코저하엿으나 종시듯지 아니하엿으므로 七十七명은 영영그광산과 인연을끈코 취업치 아니하고그외의七十명은 六월三일에 새로용모되는 형식으로 취업하엿는데그후의형세가 주목되고 잇다한다.

麗水事件言渡

來廿五日에

【광주】 여수적색노동조합과조선공산당재건 전남동맹사건의 성충조(鄭忠祖)김영균(金永均)이창수(李昌洙)등十三명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사건의 공판은 최고六년징역 최하八개월징역을 구형하엿거니와 언도는 오는二十五일이라고한다.

白骨挾雜犯送局

이태원 공동묘지(梨泰院共同墓地) 백골현잡사건은 저간 용산경찰서에서 二천여명의 피해자를 一一히 호출하야 불일에 조사하든중 그에대한 취조도 一단락을 짓고서 사기 공갈횡령죄명으로 一건서류와함께 오는十六일에 이홍순(李鴻淳)(二八) 김순구(金舜九)(二二) 박영국(朴永國)(二八)등三명을 송국하리라 한다.

氣壓은太平洋으로고개돌려

좀체 비올可望없다

昨冬의酷寒、늦는餘殃으로旱魃

狂騰하는건水銀柱뿐

한열이 더할께 기다리는 비는 못할 소식을 보이고잇다.

『장마가 가믐원인이면 살수가 구름이저서 어제(十三일)같은 금년으로서 최초의 三十도五분이오 오늘(十三일)와 수은주는 더욱고 올라갈 것이요 …』

대체로 하늘에 구름한장이없으니 언제나 비가올것인가. 이제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의 조영근 기수의 말을 들기로한다.

예년보다 비가 두달을늦어잇고 또앞으로 언제나 비가올는지 지금같에서는 따저볼수가 없다 예년같으면 매년 四월경에 로령연해주(露領沿海州)의 뻿칼만(灣)오호스크바다에 우세한 고기압이 생기고 기온도 높으며 이영향으로 그이듬해조선에로 몰려들어 이뒤로 중국남쪽 양자강(揚子江) 유역의저기압이 발달해와서 비가오는것인데 작년 오호스크해를 중심으로 기온과 고기압에 이상이생겨 지난겨울 조선에는 몹시치웟고 늦게 눈이 만엇으며 금년에는 고기압이 약하고 이때문에 조선쪽으로 오지를 안코 모다 남으로 꺽이어 본주(本州)와 태평양쪽으로 고개를 돌렷으며 양자강의 저기압조차 그러해서 조선에는 쓰처럼 비구름을가진 기압이 떠오지안는 때문에 몹시 가믈다. 대체로 예년에 비하야 우량(雨量)은경 리 내외가적고 경기, 충청에는 二十三、四미리가, 강원도에는 十五六미리가 함경도는 二、三十미리가, 함경도는 五六미리가적다.

그러나 평양부근만이 경우평년의 우량을 보이고잇다。운운

이 만코 곳에따라 안개가잇다。

京城地方 今夜 大體晴 一時曇 明日 同上

全鮮 同上

昨日 最高三〇度五 最低一五度四

七四八粍의 低氣壓은 滿洲北部를 東進하고 잇다。七五二粍의 低氣壓은 天津의 北에잇다。高氣壓은 日本의 東海上에 七六四粍를 示하고 其先端은 半島의 西部에 突出하고잇다. 滿洲南部, 日本共히 晴天이 만코 …

今曉、纛島에强盜

主人과大格鬪演出

食刀로亂刺、現場엔鮮血淋漓

犯人은負傷한채逃走

十三일 오전三시卅분경 부외서뚝섬리(西纛島里)四七七번지에거주하는 노동자 임옥석(林玉石)(二)이가 깁이 잠들어 잇을때 조끼주머니에서 三원들은 지갑을 빼어내라하므로 눈을떠본즉 四十세가량되어보이는 장정이 도적질할 목적으로 들어온것을 알고 단번에 몰려매치자 범인은 품엇든 八촌가량의 식도를 끄내어가지고찌르라고하야 두사람은 마당에서엎치락 뒤치락 대활극이 버러젓다 피해자인 임옥석은 뚝섬에서기운세고 씨름잘하기로 이름이 잇는터이라 용감하게도 대항하야 범인의 식도를 빼앗어가지고 범인의복부와 흉부를 함부로 찔러 모래땅인 현장에는 선혈이 임리하고범인은 전신에 피투성이된한채로 식도를 남기고 도망하엿고 임옥석은 두부와 왼편손에 二주일간의 부상을 입엇다.

이 급보를 접한 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서장이하 각주임과 三十여명의 경관대가 현장에 출동하고 또 연히정(延禧町)의 강도사건이 발생한지도 얼마되지안는 터임으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응원출동까지하여 범인수사에 혈안적 활동을 계속 하고잇는데 아직 범인의 신원은 전혀 불명하나 원체 중상을 입엇으므로 사망할는지도 모른다하며 상처가 유일한 증거이므로 체포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府常任委員

一二名選定

경성부에서는 十二일 오후二시부회를 소집하고 부회상임원(常任委員)十二명을 선정한결과 조선인부의원중에서는 다음과 같은제씨가 선정되엇다。

▲李弘鍾▲金健純▲韓相億▲曹秉相▲洪必求

그리고 十三일 오후三시반부터는 제一부교육부회(第一部敎育部會)를 개최하고 교육부회 상임위원을 선정하기로 되엇다한다.

朝劇放火犯

不日間送局

取調는簡單히進行

興奮갈아앉자 悔悟의눈물

조극(朝劇)방화범 임종승(林鍾承)(十七)은 종로서에 유치된채 취조를계속중이다.

그는 피차당시 큰이불 저즐은 흥분도 까라지고 지금은 회오(悔悟)와 자포자기의 뉘섞긴 감정에서 괴로워하면서 취조에응하는데 원래 그자백이 명확하야 사건은 간단하게 거침을 보게되엇으므로 범인간 유죄의 의견서를 작성하야 송국하게될모양이라 한다。(사진은 방화한 임종승)

診察無料로酬應

부내종로二정목三十九번지 보건의원(保元醫院)도은규(都殷珪)씨는 래진에한하야 금후一개월동안 진찰무료로 일반에 응한다고한다。

楚山에拳銃團出現

軍資五千圓請求

富豪子等三名을人質로拉去

國境警察緊張大活動

지난五일 평북초산군성서면 연담동중단리(楚山郡城西面蓮潭洞中端里)에 조선○○군 제三중대소대장이광수(李光洙)의 인솔한 김병하(金炳河)최치인(崔致仁)정무한(鄭茂漢)최석수(崔石洙)등 五명이 잠입하야 동리 이상진(李尙珍)에게 군자금(軍資金)으로 五千원을 요구하엿으나 마침 돈이없으므로 그들은 『그러면너의 아들을 인질로 잡어갈터이니 돈을해가지고 오라』한후 그의 장남 이건우(李健雨)(二〇)와 동리 강시화(姜始化)(二〇) 황성보(黃成寶)(二〇)등 三명을 납거하여 가지고 국경을 건너 집안현(輯安縣)으로갓다.

그런데 그들은모다 군복을 입엇고 모젤식권총과 소총을소지하엿다하며 국경경찰에서는 그들을 추격 수사중이나아 지까지는 소재와 확실이모른다한다.

六月曝陽이直射

卅餘生徒昏倒

祝賀式場이修羅場化

【용정】 지난十일 오후二시에 만주국치외법권철폐조인경축대회(滿洲國治外法權撤廢調印慶祝大會)를 간도용정(間島龍井)시민그라운드에 一반주민 수천명이 회집하야 성대히 거행하던중 갑작이 나려쪼이는 볕밭에 남녀어린학생 三十여명이 그만 일사병(日射病)에걸리어식장구호반(式場救護班)에 수용하야 응급치료를 하엿으나 식장구호반은 임시로설비한 관계상 천막을 친 잔디밭우에 三十여명이차례로 누어잇는 모양은 참으로 처참하엿다는데그원인은 六월폭양(六月曝陽)을 당하여 영양부족으로 견딜치못한 몸에 호리든 하늘에 갑자기 쪼이는폭양에 그만 일사병에걸렷다한다.

十·자가

「예수」께서 대속의 간고한 반생을 지나 五일 석간 제二면에 기재하엿거니와 그 고난의 심령의 고난과 육체의 고난 두가지로 볼수 잇다 첫재는 「예수」님의 …

…

京城府鍾路… 上原里…

六月十日より 洪吉童傳續篇

面影

上에서下까지

◇佛蘭西 토비스 …
◇伊太利가낳은 …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우리옷감 대극성광목

待望의新春! 現代的力學 中央體育研究所 (各種案內…)

外性 婦人科 病科 醫學博士 西野入直澄 仁川府… 電話一一一…

洗はずに染る ナイス 京城…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年藥 百補丸 一劑十圓 京城堅志町 平和堂

ラヂオ 電氣蓄音機(月賦販賣) 極東無線商會 電光二七四二 學校用放送擴大機

六月十四日カラ十八日マデ特別大公開

若草映画劇場

過去から來た男

猛獸師の子

あきれた連中

東亞案內

讓店

朝鮮赤松原木 廉價大賣出

產地 江原道高城郡東京帝國大學演習林

材長 一間 一間半(十尺五寸) 二間 二間半(十五尺以上)

右材木의由來는 李朝五百年以來皇定封山으로禁養해오던곳인데 自今三十年前부터 東京帝國大學農學部演習林으로 指定이된 以後採伐을 保護해온關係로 樹齡은平均三百年이나되는松木으로 柾目이緻密하고成長이良好하야 赤味가多量하기때문에腐敗脂堪은勿論 光澤이佳良함으로 細工用建築用材建具用材 化粧用材土木用材로 三十餘年前부터 日本內地에移出되고잇엇으나 今年부터는 數量이적음으로 鮮內顯買者諸位에게 廉價로供給코저하오며 現今約三百萬才가 高城驛頭에着着上陸시키는途中에잇사오니 勿失此機하시고 多數注文하여주심을敬要하나이다 注文規定은原木及製材品을不問하고 迅速注文에酬應하오며 遠處로부터의注文은 지어도發貨車以上으로單位하고 代金의二割을 契約金으로받겟습니다

本店 … 善益木材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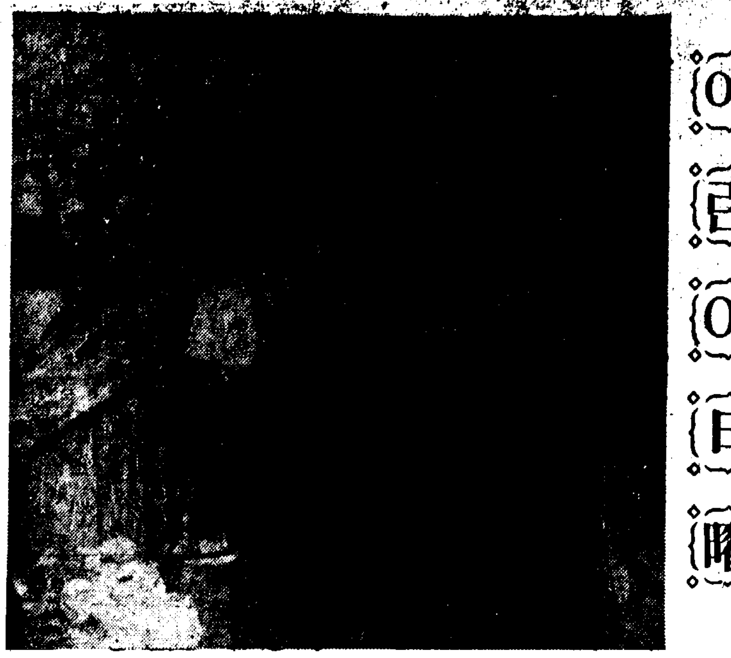
販賣所 京城府孝悌洞一九七番地 協和製材所

龍山販賣所 龍山驛前(漢江通一五番)

醫師同樣 開業 電 醫 養 成 (全國無試驗) 申込規則送呈

東京電醫學校直系 朝鮮 高等電醫南鮮講習院 釜山府寶水町三丁目六七番地

어린이日曜



어린이新聞

나무속에지은집으로는 세게에제일크다
인도토인이백년동안살어

미국가주(加州)에잇는 세계에서 제일큰나무집인데 얼마나 나무둘레가큰지 나무를 파내고 나무속에다가 집을 지엇다고합니다 나무임자는 아메리카 삼(杉)이라고하는데 높이가 七十五메돌이나되고 뿌리의주위가 三백三메돌이오 직경이 九十三메돌이나된다니 무세식구가 사는집은 넉넉히 지을수잇을것입니다.

그집에를 가서 문에 써붙친것을보면 일찍보는 아니발붓것이니 누구던지 맘대로 들어가보십시오하고 써잇답니다.

이속에잇는방은 삼간가량이나되는방을 흙을 지어노코 부엌도잇고 스토부도잇어 살기에 편리하게되엇답니다.

이집에서 살든사람은 인도토인이 百년간이나 살아잇엇고 이나무의 나이는 四백년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집구경을갓으면 조켓오나 위선 사진으로나 보아두십시오. (커트는나무속에지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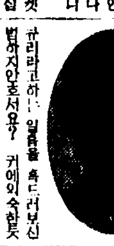
일곱살에名砲手 전문가도못딸어

아메리카 이리노이스주 뻴몬이라는데 금년일곱살밧게 안되는 바드·포스라하는 어린애가잇는데 이아이는 다섯달전에 솜씻는법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어떠한전문가도 따르지못할만큼 솜씻는 명포수가 되엇다고합니다 사진에 보시는바와같이 총을 겨누는 품이 그럴듯하지요?(사진은안인·포스)

불란서에도 여자대신술인

이번불란서에서 성립된 새내각 대신중에는 보건(保健)대신이 여자가 되엇는데 이레누·조지오 귀리라는 부인이라고합니다.

귀리라고하는 일흠을 혹드러보신법하지안흐서요? 커에위숙한 서기一八九七년에 큐리라는 학자가 라지움을 발견하엿는데 그분의 맛딸로나서 아버지를딸머서 어렷을때부터 과학연구에 전심하더니 작년에 남편되는 푸레데릭·조리오씨와함께 하게에최고 영예가되는 노벨화학(化學)상을받엇다고합니다. 불란서에서 부인대신으로는 처음이라합니다 (사진은 구리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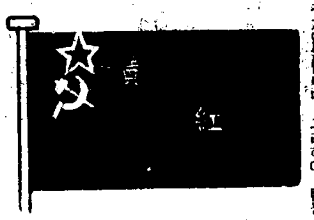
여자공예학교 二백여년전부터 여자들의 레쓰짜라는 솜씨는 세계적이엇든 것입니다. 여자도 벌어야 먹고산다는 목표아래 공예학교를 두고 이러케 가르칩니다.

노동학교 일하지안흐랴거든 먹지도말라는 경고와함께 노동학교도 다른나라에 비할수없을만치 훌륭합니다.

各國旗이야기 (6)
勞働者農民의나라 싸베트聯邦
李 傑

一千九百十七년十一월에 저의 들가리의 큰싸홈이 이러난뒤에로 서아는 그전 로서아와 딴판인 새로운 나라입니다. 싸베트연방聯邦이 바로 새로생긴 나라입니다 싸베트연방을 똑바로 말하자면 「싸베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社會主義共和國聯邦)이라고해야 할것을 너머 일흠이 길고 부르기에 추장스러우니까 싸베트연방 혹은 「노농로서아」(勞農露西亞)라고 부른답니다.

지금의 싸베트연방은 갑한사람의 나라입니다 「일하지 안는사람에게는 밥을 주지마라!」



로서아는 일하지안는사람은 밥을 주지안는답니다. 그리하야 빼붕빼붕놀고 먹는사람은 하나도없읍니다 다가치 일한답니다.

그전에 아모리 귀하게 자라고 일흠난사람들이라도 괭이를 메고 논밭에서 농사일을하고 잇답니다 마치를 들고 공장에서 일을하고 잇답니다.

로서아는 부자도없고 가난한사람도없이 똑같이 일하고 먹고입고 사라가는 나라입니다.

이로서아가 이러케 되기전 로서아의 국기는 세빛으로된 기엿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때 피·타대제(大帝)이야기를 드럿지요. 로서아의 국기는 이 피·타대제가 맨드럿답니다. 피·타대제가 오란다에서 공부하고잇을때 오란다의 三색기(三色旗)를 번떠서 힌빛과 파란빛 그리고 빨간빛으로 맨든것이엇읍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가되자 국기도 새로맨드럿읍니다 一千九百十七년에 그전 삼색기대신으로빨안기를맨드럿읍니다 새빨안 바탕에 금빛과같이 금빛낫와 금빛마치를 그렷읍니다. 낫은 농사군들을말한것이오 마치는 공장일꾼을 뜻한것입니다 그리고 낫과마치우에 금인금빛별은 싸베트연방이 이상(理想)—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의길을 가르키는 표랍니다. 또한빨안바탕은 가난한사람들의 나라를 이룩하기위하야 흘린피를의미한것이랍니다.

幼年童話 애기신문
尹福鎭

말방울이 짤랑 짤랑
소방울이 짤랑 짤랑
우리애기 말방울 소방울달고
짤랑짤랑 우리애기 신문돌리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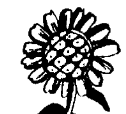
돌이집엔 가·자한자 그려보내고
순이집엔 나·자한자 그려보내고
분이집엔 다·자한자 그려보내고
우리집엔 백지한장 너어보냇죠

◇

말방울이 짤랑 짤랑
소방울이 짤랑 짤랑
우리애기 말방울 소방울달고
골목골목 집집마다 신문돌리죠。

—1936·6·6 아츰—

꽃속에숨은傳說(十七)
해바라기
아오라도모함해서사랑을뺏스라다해바래기가되어
金 相 德



해왕(海王)은 「오사나스」를 섬기는 정녀(精女)에 「크리사」「큐코사」라고하는 어여쁜 형제가 잇엇습니다.

해궁에서 지내는 두여신은 왕의허락을얻어 밤에만 땅에나려와서 놀게되엇습니다.

그러나 햇발이 퍼지기전 그들은 물속으로 돌아가는것이 법이된고로 그들은 바다의 물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하고 재미잇게 놀다가도 날이 밝을때가되면 그대로 물속으로 돌아가는것입니다.

하로는 너무나 가뿜에 쯧이겨서 날이밝는줄도 모르고 놀앗습니다.

동편하늘이 복숭아꽃빛으로 곱게물드러지며 햇빛이 빼치드니 오색채운이 영롱한우에 금수레를 조용히모라「아폴로」신이 나타낫습니다.

「아폴로」는 햇님의신으로 얼굴이 곱고 풍채가조흐며 신상이늠늠하야 여신과정녀들의 동경하든 신이엇습니다.

다가 머리를숙여 절하엿습니다. 두처녀는「아폴로」신을 이때부터 처음보자 그의 정화스럽고거엄성잇는 우슴을 엇어보겟다고 뭐는가 로「아폴로」신이 오늘이야말로 가다렷습니다.

는 本심이되엇습니다. 이「아폴로」신을본 두여자는 정신이 황홀하야 어찌할줄을 모르고 사모하게되엇습니다. 「크리차」는 동생도「아폴로」신을 사모하는것을보고 질투를 하야 해왕에게 「큐코사」가법을 범하고「아폴로」신에 반하야 해궁에도 도라오지 안는다고 일러바첫습니다. 수상왕은크게 노해서「큐코사」를 옥에 가두엇습니다. 언니는「아폴로」신을 혼자만 차지하게된것이 기뻐서 물밖에나와 아츰이되기를 기다렷습니다.

습을 진정치못하고 잇을때에 「아폴로」신은 수레를모라 구름으로 올라왓습니다 「크리차」는 할수잇는대로 온갓 아양을 부려인사하엿으나 웬일인지「아폴로」신은미소(微笑)조차 보이지안코 그대로 씽씽하늘을 향하야수레를 몰아올뿐이엇습니다.

절망에빠진「크리차」는물속으로 들어갈줄도몰고 밤이면 눈물을 흘리고 낮에는 해의신인「아폴로」가는대로 그뒤만바라보고 지낼뿐이엇습니다.

그러나「아폴로」신은「크리차」를 한번 도라다보는 일이없엇습니다 이와같이 밤낮 아홉날을 두고 지내다가 그는 「크리차」는선자리에서「해바라기」꽃이 되고말엇으므로 지금까지 이꽃은 해가가는대로 얼골을 돌리는것입니다。(끝)

라디오 JODK

六月十三日(土)

▼六時三十分 講力指導(敎育레코-드併用)(三) 鄭寅燮

▼七時 時事解說 徐椿
▼八時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八時三十分 라디오드라마 「안해의秘密」 一場
—配役—
英俊……河一琅
그의妻(貞淑)……李英愛
그의동생(永範)……林炳淑
光浩……宋芝園
中國料理商……文烈
下女……池蓮玉
演出 李瑞求 效果 楊薰 放送劇協會
▼九時十分 赤壁歌 郭明月 郭山月
▼九時三十五分 音律 一、鄕唐交奏 二、仕絃風流 笑琴 大笒 細笛 杖鼓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大)幼兒へのむかしばなしたきりすゞめ▲六時二十五分(東)生活改善講座時の讚賞及利用の實例▲七時三十分(東)歌謠曲▲七時五十分(東)民八一三三飮迫調▲八時一分(東)舞踊劇東京劇協より中繼▲九時時事解說

六月十四日(日)

▼零時五十分 농양外 一、농낭 二、압산타령 三、뒷산타령
▼午前六時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一時二十分 洋樂(延專主催第五回全鮮中等學校聯合音樂會入賞者)
▼二時 野球試合實況—全京城對全大邱—京城그라운드에서—
▼六時三十分 管絃合奏 一、行進曲『希望』 二、舞曲—바즈르카 2、가보트 三、夜曲 四、圓舞曲『森林의追憶』
▼六時五十五分 心田開發講演 이달리안『만족』
▼八時 『農民의저녁』 田榮澤
京畿消防業技手 朴普日
農會技手 南基徵 外三人
▼八時四十分 農村美談 豚皮의 [illegible]
▼九時五分 農夫歌 申鼎言 丁南希 趙相鮮
▼十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第一放送

▲九時三十分(東)管絃樂▲十時(東)日曜勤行▲十一時四十分講演農民デーに際して▲十一時十分農民デー實況—水原農事試驗場水田より全國中繼▲零時三十分滿洲より(ハルビン)▲一時二十分(東)能樂中繼・京多能樂堂より▲三時二十分(東)浪花節▲二時十分野球試合實況(釜山鐵道局對大邱)釜山大新町球場より中繼▲二時五十分(大)新派劇と管絃樂▲三時二十分(東)新日本音樂▲四時二十分(大)住吉神社御田植祭實況▲六時DKこども新聞(第一回)、鳥と猫二、森先生▲七時三十分孔子祭典樂(慶熙殿前)▲七時半演藝▲八時三十分(東)落語集▲八時五十分(東)ラヂオドラマ 馬市が來て

六月十五日(月)

▼午前六時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午后零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丈거리 大笒 方龍龍 [illegible]
▼三時十五分 婦人時間 『부엌을깨끗이합시다』 柳英春
▼六時三十分 兒童劇 『希望의무지개』 全一景 버들피리會 指揮 太成均 伴奏 버들피리伴奏團

▼七時 經濟解說 [illegible]
▼八時 講演 食物과壽命과의關係 李[illegible]
▼八時三十分 唱劇 一、短歌 梨花歸門 李珉[illegible] 竹枝詞 二、唱劇 沈淸歌 丁貞烈
▼九時 孔明歌外 [illegible]
▼九時三十分 歌詞 一、[illegible] 二、漁夫詞 文明仙 金蓮紅 大笒 金永模

白蓮流轉記 92
尹白南 作 李靑田 畵

九、동지(同志)五

홍구엽의 보고는 구연산산로 전부의 머리에 적지안흔 충동을 준것은 확실하엿다。

더구나 새로운 제의를한 영백은 이보고에서 어떠한 암시를 받고 따라서 자기네 전도에 한커다란 광명을 던저주는것이라고 생각하엿다.

사실 김옥균(金玉均)은 은근히 개혁의뜻을 먹고 먼저 그의위 박씨와 가까히 사귀엇으니 그것은 박씨의 인격에 경도한바도 잇지마는 그보다도 그의 지위를 이용하야 궁중과 연락을 취하자는 욕심이 잇엇든까닭이오 또 하나는 그의 문벌지위를 이용하야 앞재비로 내세우자는 계획이 잇엇다.

그는 일즉이 일본 북태유길(福澤諭吉)을 [illegible]양평외와 세계대세에대하야 그에게 개발됨이 적지안헛고 성게는 안으로 제반제도를 완성하여 가고 밖으로 대외교에 장족의 진보를보이고잇엇다 더구나 어느나라를 목표삼어서인지는 모르되 군비를 확장하는데에 전력을쓰고 잇는것이 보이엇다

한개의 서생의 자격으로 건너간지라 정부당국자를 만나보지는 못하엿지마는 측면으로 관찰한정계의 동정과 민간유지의 여론은 김의 이번 외유(外遊)로하여금 헛되이하지 안엇다

그리하야 김은 동경에 유하야 조선의 완전한독립을 생각하며 조선정세의 일을 차례차례로 연구하여가며 선정세의수이할 산피고잇는 중이엇다

「그래 김씨는 뒤에숨어 잇어서 일을한나니 어떠한일이든 아니어떠한 정치로 일을든이라는것인지 그것은 알어볼수없어가겟지」

「그것이야 알 도리가 잇습니까만 일을하라는 그네가 궁중연이게 남이 알도록 계획은무만리잇음 니까 내가 이번일은 알게된것 만해두 중요한 기회가 잇엇으니까 알게된것이지오 든기에는 김씨는 지금 일본에건너가잇다 고 하니다 하여간 우리가 일을 하는데에는 이러한 기회를 노치지말어야 하겟나닛것이외다 이제것 하든일이로 먼리 눈을보내고 무엇인가는 깊이 생각하고잇던 영백이 돌연히 입을 연다.

「여러형님 때가왓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두 곧 이산막을 떠나 화약을 개시해야겟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가는말씀이오 떠나가면 어디서 시작하여야 좋겟오」

「그것은」

하고 영백은 한자리 나아앉으며 음성을 나추다 여럿도 그를 따라 자리를 나아앉으며 머리를 맛대다싶이 모이엇다.

영백의음성은 반간을 떠러진 사람도 알아듣지못할만큼 낮어 잇다 「대관」「민비」하는 소리가 새어들릴뿐이엇다.

한동안을 구수밀의(鳩首密議)를하고나서 허리를 펴고 바로앉은 그네의 얼굴에는 히망과 환희와 비장의 착잡한 표정이 떠올라 잇엇다.

양평외의 서양근대사람과 성치제도(政治制度)에관한 저서를 언어읽고 크게 깨다른바잇어 문래 본국을 탈출하야 제물포(濟物浦)에서 일본가는 백천환(白川丸)이라는 목조기선의 선객이 되엇다.

그는 세계의 대세를 알랴면 저 일본을 시찰함이 첩경이라는 생각을 가젓엇다.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수입하기에 급급한 상태에 잇으니 간접으로 서양의공조도 엿볼수잇으려니와 그보다도 또한가지 김씨의심금을 두다린것은 일본이 유신(維新)의 대업을 성취하고 입헌정치(立憲政治)가민지신상의 미묘한 활동을 개시하엿는데대한 위대한 국민적성신을 체득해보겟다는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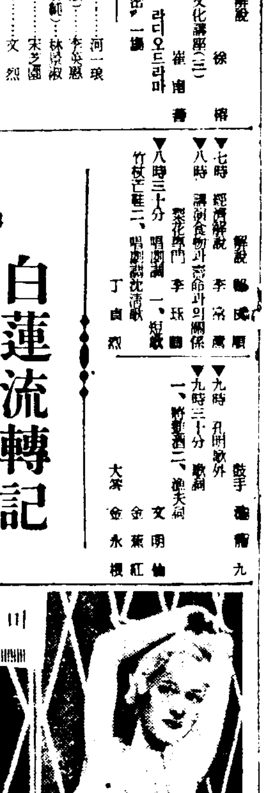
그것은 국가건설에 당면한위대한 정치가의 수단에만엿다고하겟지마는 그보다도 명치유신의대업을 성취시킨 국민의 자각과 기백(氣魄)이 가장유력한원인이라고 생각하엿다.

조선으로하여금 청국의 기반을 벗게하야 엄연한 한개의 국가를 완성하는데에는 모든것을 일본에서 배호지안흐면 아니될것을 그는 굳게 믿엇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옥균은 혼자 일본으로 건너간것이엇다.

동경에 잇어 서의 김은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언엇다. 평임에사숙(私淑)하든 복택씨도 만나 동

美容과醫學



살결을 본바탕부터 히고 어엽뿌게 만들어주는
미안료법이발명되엇다!

어엽뿐것을 따르며 조화하는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잇는 인정이오나 그러타고 얼굴을 뜨더고치는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분의게도 모도 어엽뿐 특증을 받으시고 가지고잇는것이니 그점을할견지 못하시고 다만 남에하는것을 따라하실때에는 아무런 특증없는 얼굴이 되고 마는것입니다

그런데를 들어서 말삼드리자면 남유달리 얼굴이 거칠은이 남과같이 깨끗이보이려고 분(白粉)、크림、화장수등을 아무리 반드시여서 화장을하실지라도 그분의종유에따라 발르신때에는 조곰 힌것같이 보이다가도 조곰만 지내면 오히려 아니받는이만 못하게되는분이 얼마나 만습니까

또한 도회지에게신분께서는 혹이 미용원(美容院)에 가시는분도 게시나 살결이 거칠고 더구나 얼굴에 주근깨、여드름、버짐、기미가 끼여잇는분에게는 아무리신식화장품을 가지고라도 그본인이 가지고잇는 천성의 어엽뿜을 발휘치못할것입니다

그리하야 지금까지에 유명무실한 화장품도 만히 생겨스며 또한 미인(美人)으로 만들어준다는 약도 만히 생겨낫스나 그다지 조흔 효과를 엇지못하엿든것은 지금까지에 여러분이 만흔것을 사용하여보신경험에서 짐작하실줄로 밋습니다

그러므로 어떠케하면 남녀(男女)를 물론하고 살결을 본바탕부터 곱게하여주며 히고도 맵기럽게하여서 천성의매력을가지게하는 강력미백소(强力美白素)를 세계각국의 미용의학계에서는 연구하여왓섯습니다 또한 살결이 어엽뿌고 히게할뿐만아니라 얼굴에생긴 여드름、버짐、기미、죽은깨같은것을 업새는 살균력(殺菌力)이 강한것이라하야만 된다는 조건이붓기때문에 여러종류의 약과화장품이 생겻스나 일장일단의유감이잇섯습니다

그리하야 재래의것과 결점과 불비한점을 무도 보충하며 신학설과 실험와학에서 발명된것이「레온洗顔크림」이오니 가정에서 간단히 사용하야 어엽뿌게됩니다

활성상태(活性狀態)의 고로이도 硫黃을 保有한 強力美白素「레온세안크림」은 미백살균(美白殺菌)작용이 강함으로 자택에서 아무염려없이 간단히 사용하야 단시일안에 살결이곱고 빛갈이 히게되며 여드름 죽은깨 버짐과 개기름을느든것이없어저서 어엽빠짐니다

K—10

活性고로이도硫黃이 잇재 조흔가

무든나무입새가 처녀의 햇빛에 빠작이는 요새에는 따뜻 오고는 인공의 화장에 더욱 주의하서야 할때입니다.

◇처녀시대…명랑한신녀성의 생기와 청순의 꿈을 어여쁘 얼골에서 하기위하야

◇가정부인…시부모 남편 시종과 가정살사리에 경황하시는 사이에도 틈없는 배려와 애교가 가장 중대하오니 화장을 안그라도 본바탕부터 어엽뿌얼골에 빽지 떠여지는우슨 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정애가 더욱 두터워질것이니다.

◇직업부인…직업상 하는수 없이 매일 화장을하시게되야 분때와 연독(鉛毒)으로 상견이

◇잔주름이…만혼분은 주름이 없어지고 화색주는 탕탕한 살결이되기위하야

◇햇빛에…거른 남녀 활동가운 화장의부보다 살결을 보호하고 자외선(紫外線)을 발어서 무터워진 색소침(色素沈)을 없새게하야 타고난 어엽뿐 살결로 만들기위하야

어느분이라도조금도 주제마시고 「레온洗顔크림」을사용하시면단시일안에경탄할만한효과를어 더서 윤나는빛갈과색맛는얼굴을 하게되는것입니다

활성고로이도硫黃에대하야알기 쉬웁게려를드면유황온천에그년 식온정말뵈혼하시고계신분이나 곳유황온천에서얼마나살결이 얼굴이나손발등에빠에는홍도색의 화색이젓으며그얼마나살결이희가 좋아신것입니다

이것은천연의고로이도硫黃이나 천연의고로이드화황이나마 이것은유황이어는얼마나피부에유 의유황이어는정에피부에영향이되 여서색소를보해(美化)하고또한피 부표면의 살균 미화(美化)작용을 한까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천리한 아나 사신 예잇서서 그런 작용을하는 유황 온고로이도状態그대로 보존하 는수가없으며 또한 아무부작용없 시 만드기에는 너무도 어려웟습 으로 여러가지로 고심연구한 거 한결과 처음으로 세계각국의미 용의학계에 자랑하게된 活性고로 이도硫黃의「레온洗顔크림」이 내발명된것입니다

특히 이 과학적사실(科學的事實)을 선명함에대하야 흥미잇는 보통 유황은 물어서 반드시 그

活性고로이도硫黃을 특수피부淸白營養료와같이 약용화장용에 성공한 레온洗顔크림은 하로에 두번 三四分치로에 효과를어둘수잇습니다

혹은 모든방면에 너서목욕을하셔도 그런것은작용을하지못하게됨으로 아무런 효과가없습니다

얼굴에 여드름 버짐、기미、죽은깨 본때、잔주름이 생겨서 고심하시든분이나 빗갈이검거나 빛이여드른분 입버린 청주를 한탄하시는분은 조금도 주제마시고 사용하시사 입어버렷든 우상의 매력을 다시 차저주십시요.

「레온洗顔크림」(レオン洗顔クリーム)은 전도 유명화약방 화장품점、大百貨店에서팝니다마는 매절되었을때에는

東京市神田區小川町三丁目 株式會社レオン商會 (振替東京八八一番)으로

주문하시면 우세三十錢 선송하시는분에한하야남여지송료부담하고대금인환으로도송하여드립니다 정가는 普通瓶一圓四十錢、徳用瓶三圓四十錢이오니 하로빗비 사용하야 겻평율어더 주십시요

무대진정

붓지않시든대로 조선말으로쓴「신기정미안료법」이란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金貨切下의 意義 (下)

＝切下에의方途＝

＝世界通貨再安定＝

春繭出廻開始

三圓九十錢으로賣買

品質은至極良好

慶南春蠶良好

二萬九千餘石收繭

各地春繭時勢 (農林局發表)

今年春繭收穫

＝比昨年減少豫想＝

春蠶第二回收穫豫想

石油消費協定

下半期에一割五分增加

倉庫貨物出入狀況

鐵鑛業法改正

肥料輸送運賃

朝鮮은倍額高騰

短距離特典도全無

硫安五分引下

〔大阪電話商通〕

土曜株評

東新의今後

環境過度悲觀의是正

産業統制法

依然反對氣勢

朝鮮獨自案으로妥協

石炭消費累增

三百七十萬噸

今日의市況

六月十三日

株式（單位十錢）　正米（三等單位）　期米（單位圓）　商品（單位十錢）

京春十六萬株配定

人絹操短

＝五分程度擴張＝

〔東京電話商通〕

米日爲替續騰

〔六月十三日倫敦電〕

財海餘波

時勢와市況

株式

保勢

前場日魯高

小揚一貫

隔休로警戒

朝取短期前場步調

日魯만이獨强

新高價로奔騰

東新大保合？

・目前浮動은難免

期米

買物繼續殺到

又復新價猛騰

前場伸惱

後場新高價

天候의打診

雨意는千里萬里

飛付警戒風情

米豆餘墨

實物賣買價前場

東京國債市場

大阪國債市場

大阪人絹現物

內外金銀時勢

〔六月十三日〕

海外金銀

東京金銀（特電）

京城金銀

海外經濟

大阪特產　金融　商品　日本銀行勢　朝鮮銀行勢　京城手形交換　大阪棉花　大阪砂糖　各地人造絹　橫濱生絲　京城綿絲布　京城油粕冲繩

堂島期米前場

正米

再次强騰

京城强調

仁川昂騰

群山躍進

大邱强調

釜山續進

木浦一服

各限後合

期米

正米

地方正米時勢

金石福 土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白金・地金部